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초막절의 논쟁 II

(요 7:11-13)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한 하나의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물학자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하고, 어떤 철학자는 예수님이야말로 훌륭한 사상가라고 하고, 또 어떤 종교자는 그 시대의 매우 중요한 정신적인 지도자였다고도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처럼 여러 종류의 대답이 나오는 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온 사람들도 포함된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해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2.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의 정당성

유대인들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옳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잘못 표현했습니다.

(1) 정신 병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니까”(7:20)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독재자 히틀러, 나폴레옹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했지만 막상 그들 자신은 소 영웅주의에 빠져서 자신을 과신하다가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던 미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진리는 아주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2) 미혹하는 자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7:12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미혹’이란 ‘속인다’는 말로서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영웅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스스로도 속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989년 루마니아에서는 차우세스쿠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을 강행하다가 임시정부에 의해 체포되어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루마니아 온 국민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특히 그가 12월 25일

에 죽었다고 그의 죽음을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독재자의 말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했었는데 남을 죽인 그 인생도 총살형으로 마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그런 사람 중의 하나라면 예수님은 속이는 자치고는 머리가 좋지 않은 미련한 자가 될 것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와 로마 사회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 박카스 신 등 수도 없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신이 있다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반신이라는 것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만일 속이는 자라면 차라리 그런 지역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어도 납득이 되고 용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일신 사상을 가진 유대 사회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며 구원 주 메시야라고 주장을 했으니 정말 예수님이 속이는 자라면 매우 어리석고 수준 이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결코 속이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30절을 보면 절정을 이루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누구나다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만일에 그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아니했더라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실 터이니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영광 또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다시 한번 지극한 신앙 고백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라며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주 앞에서 남은 삶을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21 하반기 장학생 선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학 증서는 개별 증명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이계홍 장로)는 2021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우리 교회는 1994년부터 교회학교 중등부에서 대학부까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하고 장학사업을 시작하였다. 교회 혼란기에 잠시 멈췄던 장학생 선발을 교회 회복과 함께 교회 설립 정신인 '천국시민 양성'을 위해 다시 재개하였다.

2021년 하반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총 15명으로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 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 바란다.

장학증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개별 증명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송암 장학생]

김상윤 김은빈 김재령 마건영 옥유진 이가진 장해라 정은서

[브리스길라 장학생]

김민혁 김수언 김태수 김행언 양수빈 우고는 허평강

2021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 중

부서	일정	시간	방식	주제	지도
유년부	8.21(토) - 8.22(주)	주 : 10:30-13:00	토: 온라인 주일: 오전 10:30-13:30 대면/비대면	주제 : 예수, My Wonderful Lord 말씀 : 이사야 9장 6절	조동수 목사
초등부	8.8 (주)	10:30~12:30	비대면 (줌 실시간, 밴드 영상)	주제 : 예수, My Wonderful Lord 말씀 : 이사야 9장 6절	이대원 전도사
청년부	8.14(토)	토 : 14:00-21:00	비대면 온라인	주제: 새롭게 되는 날 (행 3:19) 부제: 주님 앞에서 얻는 충만한 기쁨과 시원함	안용곤 전도사

교회설립 30주년 기념 순례자 주최

내 사랑 서울교회 사진 콘테스트

순례자는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전교인을 대상으로 "내 사랑 서울교회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 대상 : 서울교회 모든 성도
- 기간 : 1월 10일(주)-10월 31일(주)
- 마감 및 심사 : 10월 31일(주)
- 결과 발표 : 11월 7일(주)
순례자를 통해
- 전시 : 11월 7일(주)-12월 26일(주)
- 시상 : 대상 1명
사랑상·소망상·믿음상 각 1명
장려상(참여 인원내 맞게 변동)
- 응모 내용
 - 서울교회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교회 새벽 풍경, 야경 등 다양한 교회 사진
 -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서울교회입니

다. 교회 내·외 행사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 혹은 비대면 예배로 인해 인터넷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모습 등

8. 응모 방법 :

- ① 흑백, 컬러 모두 가능
- ② 3000x2000 픽셀 이상의 jpg파일
- ③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 ④ 카톡으로 전송 시 사진 화질 선정을 반드시 원본이나 고화질로 전송
- ⑤ 사진에 날짜 표기가 없어야 함
- ⑥ 제출 시 반드시 사진 제목과 참가자 이름, 직분 표기
9. 제출된 사진들은 교회 행사나 순례자 편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10. 제출 :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온라인 현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반주자 모집

고등부는 반주자를 모집한다.
고등부 예배시간은 주일 오전 9시-10시 20분이며 피아노 전공자로 예배 반주와 대면 예배 시 고등부 찬양대 연습을 담당하게 된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초등부 교사모집

초등부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다음세대를 기대하시는 성도들의 많은 지원 및 권고 바란다.

- 이대원 전도사(초등부 교역자)
010-4454-0391
- 김혜언 집사(초등부 부장)
010-3923-9913

분쟁 중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서울교회!

수기 및 간증 공모
10월 31일(주)까지 수시 접수

1. 목적

교회 분쟁 시 성도들 개인적으로 아픈 기억이나 감동적인 사연을 글 또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자 함

2. 일정 : 2021.6.1 - 2021.10.31

3. 진행 방법

- 수기형: 손글씨로 써서 사무국에 비치된 수기 공모함에 제출
- 동영상: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USB 저장매체로 제출
- 온라인: 담당자(최종희 권사)에게 메일로 제출

4. 평가 방법

- 당회, 스테반회, 권사회의 각 2명과 분쟁 백서 담당자(최종희, 장상국) 심사위원
- 교회 분쟁에 대한 개별적 경험과 신앙적 감동이 사실적 표현으로 작성된 수기 또는 동영상



이슬람 현지인이 이슬람 현지인에게 하는 선교를 목표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나,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도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전 3:5-7

1. 바꾸지 않으면 바뀐다

금세기 한국교회 선교의 최대 이슈는 모슬렘들을 향한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기독교는 모슬렘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라는 고정 틀 안에서 이슬람교와 모슬렘들을 표현해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모슬렘들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개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단한 용단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이론적으로만 주장했을 뿐, 그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정말 이슬람교 배경을 가진 이들이 오직 믿음만 갖고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주변의 냉대와 소외가 기다리는 자신의 사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현지인이 아닌 이상은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혹은 개종 대상자들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격려와 위로가 이들에게 직접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현지인이 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과 존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는 뉴 노멀 시대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루빨리 '현지인이

현지인에게(Native to Native)'라는 전략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우리가 가진 선교의 프레임을 전폭적으로 바꾸는 용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언어, 지식, 노동력, 문화와 같은 고유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닥친 가장 시급한 선교 사안은 복음을 받아들일 대상인 현지인들이 자신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자립, 자치, 자전의 가능성을 돕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이들 가운데 지도자 발굴과 양육에 집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2. 제가 경험한 해외 선교 현장과 국내 선교 현장의 차이

오랜 기간 해외 선교 현장에서 살아가며 사역했던 저는 그때와 지금 국내에서 살아가며 해 오는 사역을 한 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 사역의 대상이 터키 사람들이라는 것은 같지만, 한 가지 뚜렷한 차이는 제 마음 자세였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그때 당시 선교 현장과는 달리 지금 국내에서 터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훨씬 쉬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고발하지도 않으니 추방의 불안도 없고 현지 문화 환경을 의식해서 조심스럽고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염려도 없고 핍박도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스스로가 선택해서 들어온 이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다른 일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즉, 복음을 거부하는 해외 선교 현장에서는 시간이 많았으나 복음 전파가 어려웠고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없는데도 수많은 다른 일로 복음 전파할 시간도 없다고 부끄럽게 핑계대면서 살아가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래도 지금 국내 사역이 당시 해외 선교 현장에서 보다 훨씬 많이 주님을 영접하고 더 많은 세례자가 생겨서 기쁘고 저희의 어려운 사역에 커다란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터키 친구 하나가 주님께 돌아와서 세례 받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례식으로 국내 귀국 후 안디옥열방 교회를 통해 터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총 65명의 잃어버린 영혼이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물론 너무 적은 숫자지만, 이 일을 위해 함

께 기도해 오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사역 중인 우리의 모든 사역자와 동역자분들께 커다란 격려요,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 사역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주고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함께 일하는 분들의 노고와 기도, 연합과 동역의 결과이기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작은 열매라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안디옥열방 교회 8월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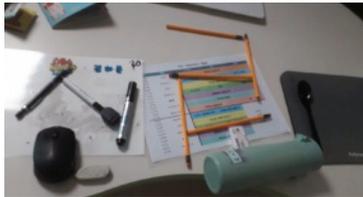
1.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례 받은 터키 친구들과 중심으로 15명 내외가 모여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빠른 시간 안에 상황이 회복되어 모두 함께 모여 더욱 풍성하게 예배 드리는 그 날이 오게 하소서.
2. 교회에서 세례 받은 형제들의 삶을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흠뻑 젖어 사는 삶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제자를 낳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현지 리더십들이 나오게 하소서.
3. 국내로 들어온 터키 친구들 모두가 귀국 전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며, 이 일로 부름받은 안디옥열방 교회를 비롯해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회와 동역자들을 늘 사용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4. 김요셉 대표 선교사를 중심으로 함께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역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남은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터키 친구들에게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소서.
5. 가까운 시일에 세례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터키인 친구(메테한)을 붙잡아 주시며 성령님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6. 평일 가운데 수요일과 토요일에 ZOOM이라는 매체를 통해 시작한 비대면 <성경공부>와 <한국어 공부>시간을 풍성히 하셔서 많은 터키 형제들이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함께 일하는 안디옥열방 교회
김요셉 선교사 드림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 초등부



몸으로 표현한 신뢰



펜과 연필로 표현한 신뢰



액션 북 완성!!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기도 대상자들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황수지(육사생도) 김은호

유성혁 소준 백승규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심준규 허성강 장하람 옥준용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동정

■ 8.12 몽골국제물란바타르대학(명예총장 : 이증운 목사)은 미국 언더우드대학과 MOU를 체결한다.



놀라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비대면 실시간 중계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공예배에 힘써 참여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피택집사, 피택권사들이 방학 중에도 기도예 힘쓰며 잘 준비된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3. 코로나 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나라가 법과 질서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 주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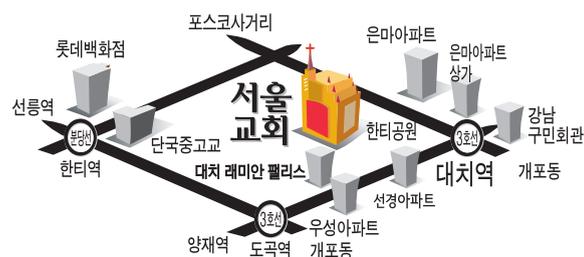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8월9일	월	렘 13-16		삼상 12-17	
8월10일	화	렘 17-20		삼상 18-23	
8월11일	수	렘 21-23		삼상 24-31	
8월12일	목	렘 24-27		삼하 1-6	
8월13일	금	렘 28-31		삼하 7-13	
8월14일	토	렘 32-34		삼하 14-19	
8월15일	주일	렘 35-38		삼하 20-24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